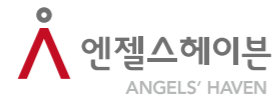


2018년 연간보고서



2018 연간보고서

ANGELS' HAVEN 2018 ANNUAL REPORT

CONTENTS

- 02 발간사
- 04 미션과 비전
- 05 5대 핵심가치
- 06 연혁
- 08 아동·청소년 복지 서비스
- 22 장애인 복지 서비스
- 50 지역 복지
- 58 해외 복지
- 67 재정보고
- 68 엔젤스헤이븐 기관 안내

사랑이라는 전문성

엔젤스헤이븐의 지난 60년의 성과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난 60년의 성과를 사랑이라는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사랑을 계량화해보았습니다.

60년간 엔젤스헤이븐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해 온 미션 기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 땅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했고, 한알의 밀알로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으로 60년간 기독교 사회복지법인으로 사랑을 실천해왔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누군가가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사랑의 대상이 아동이고, 장애인이고, 모자 가족이고, 재활 중인 환자이고, 어르신입니다. 시설의 아동이 18세가 되어 사회로 나가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아이라면 그냥 돈 500만 원 쥐여 주고 나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어떠한 할까를 고민하니, 자립의 4단계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30세까지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인이 되도록 돕습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에 사는 장애인들은 시설에 사는 것이 최선일까요? 우리는 자립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자립을 준비하고, 중증의 장애가 있어 돌봄이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행복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재활병원의 환자를 위한 관심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서의 재활 과정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정말로 중요하기에 낮병동개념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전국에 전파하였고, 청소년 재활팀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설의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유흥가로 빠지고, 업소 호객꾼이 되고, 다시 수급자가 되는 것을 보면서 그냥 그게 현실이고 사회인 것이야, 우리가 할 일은 다 한 것이야 하고 체념하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가 성인이 되어 나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하나하나 풀어내면서 은평천사원의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의 삶에 개입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전문성은 그러한 사랑을 기초로 발전합니다. 내 아이라면 가족 내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면 전문성은 필요 없습니다. 상처받고, 무기력해지고, 울타리가 없는 사회적 약자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이 누군가(우리가 돌보는 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전문성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냥 주어진 서비스를 제공하면 됩니다. 법적 규정에 따라서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동시설은 18세가 되면 내보내면 되는 것이고, 장애인 거주 시설은 그냥 돌봄 기능을 제공하면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개입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주는 대상이 우월적 존재이고, 도움을 받는 대상이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과 함께하여 이웃이 되고,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냥 단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장학금을 제공해도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장학금을 받는 학생의 삶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을 같이 만들어가는 데 장학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재활치료비를 제공해도 치료비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그들의 삶에 관계하기를 희망합니다. 사회적 약자란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보에 취약하고, 받은 상처가 많고, 무시당하고, 관계 속에서 소외되어 온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돕는다는 것은 그들과 이웃이 되고, 공동체가 되고, 아는 사이가 되고, 내 손이 더러워지는 것을 개의치 않고 손을 잡는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와 사례를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양적 성과 중심의 보고서와는 달리 각 기관의 존재 목적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데이터를 찾자 노력했습니다. 2014년 보고서부터 그런 고민을 했는데, 이번 보고서는 그것을 모든 기관에 적용해보았습니다. 아직 이 개념이 익숙하지 않아서 잘 정리된 보고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우리는 그 일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엔젤스헤이븐의 전 기관도 그리고 보고서를 읽는 후원자님들에게도 의미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미션과 비전

MISSION

한 알의 밀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이룬다.

VISION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엔젤스헤이븐

아동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시설 내에서 보호하고 양육하여 사회에서 스스로 살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 장애인들과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제는 시설과 기관이라는 경계를 넘어 아동과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세계와 함께 나누는 엔젤스헤이븐

한국전쟁 이후 고아들을 건강하게 키워내고, 개발도상국 시기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세워 운영했습니다. 이제 그 경험과 노하우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아동과 장애인도 행복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함께여서 행복한 엔젤스헤이븐

지난 60년간 간 아동과 장애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제는 엔젤스헤이븐과 함께하는 후원자, 자원봉사자, 직원, 시설거주자, 이용자들의 참여와 나눔, 보다 나은 서비스의 개선을 통해 모두의 행복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5대 핵심가치

(사랑)

엔젤스헤이븐 설립 이사이신 故 루스노블 아펜젤러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60년간 엔젤스헤이븐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사랑입니다.

(존중)

엔젤스헤이븐 설립자이자 초대원장이셨던 故 윤성렬 목사님은 “무릎 꿇고 도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존중하고, 믿고 신뢰하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책임)

60년간 아동시설을 운영하면서 독립한 분들 중 실패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성공과 실패에 상관 없이 엔젤스헤이븐은 모두에게 쉼터이자, 돌아올 수 있는 안식처였습니다. 우리는 서비스하는 기간 그 후에는 책임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가족처럼, 공동체처럼 함께하고자 합니다.

(정직)

엔젤스헤이븐은 설립 초부터 이사회를 통해 수입과 지출을 보고했습니다. 60년 역사 속에서 목적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정직과 투명성은 엔젤스헤이븐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협력)

엔젤스헤이븐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아동과 장애인, 해외 여러 나라를 돕는 데 엔젤스헤이븐의 힘은 미약하지만, 협력하면 그 힘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의 밀알’로 헌신을 다짐하는 생명 살림의 역사 60년

1959

은평천사원
(아동양육시설) 설립



6.25전쟁의 참화 속에서 부모를 잃고 떠돌며 구걸하는 전쟁고아들을 돌보기 위해 아동양육시설로 시작된 ‘은평천사원’

1980

은평재활원 설립



장애인들을 위한 기본적인 사회복지가 부족했던 1980년대, 남자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거주시설인 은평재활원 설립

1981

은평대영학교 설립



지적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특수학교 설립

1991

참빛교회 설립

한국장애인복지연구원 설립

1993

도서출판인간과복지 설립

1994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설립



성인 장애인을 위한 돌봄과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 전문 복지관 설립

1995

출소자쉼터힘들회 설립

1997

누야하우스 설립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자립에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천연비누 생산 공장 설립

1998

서울재활병원 설립



환자 중심의 전문적인 재활치료 시스템을 구축해 재활치료가 필요한 모든 환자에게 제공

2000

은평보호작업장 설립

2002

서부재활체육센터 설립



건강한 삶을 위해 꾸준한 재활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과 어르신을 위한 재활 체육환경이 조성된 체육센터

2003

서울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2004

모자가족자활센터
힘들회 설립

2005

신사노인의집 위탁운영

2006

은평구립갈현노인복지관
위탁운영

2007

은평기쁨의집 설립



여성 지적 장애인을 위한 거주 시설 설립

해외사업시작

갈현데이케어센터
위탁운영

2011

Ah'늘함께지역아동
복지센터 설립

2012

녹번어린이집 위탁운영

2018

은평재활원(증개축) 준공



이용 장애인들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에 중점을 둔 공간, 이웃과 지역사회 가운데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탄생

2019

갈현청소년문화의집 /
은평구립여자일시청소년쉼터
위탁운영

아동·청소년 복지 서비스

2018 지출내역

15%

8,180,387

단위 : 천 원



은평천사원

은평천사원에서는 부모의 사망, 실직, 학대 등으로 부모와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아동에게 집과 같은 따뜻한 환경을 제공하며 사랑과 정성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거주 인원 총 63명(남 29명, 여 34명)
 연령 미취학아동 32명, 초등학생 9명, 중학생 6명, 고등학생 15명, 대학생 이상 1명
 2018년 현황 입소 9명, 퇴소 15명, 자립 10명



SOCIAL IMPACT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동들은 성인이 되면 시설을 나가 자립을 해야 합니다. 2014~2018년 통계에 의하면 보호종료 청소년 100명 중 24명이 기초생활 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에 속했고 수급자가 된 청소년 중에는 무려 88.5%가 시설 퇴소 후 빈곤층으로 편입되었다고 합니다. 천사원은 퇴소 아동들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단계별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돕고 있습니다.

STRENGTH

-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단계별 자립 프로그램 제공
- 보호종료·퇴소 아동의 지속적인 관리 및 관계 유지
- 가정 복귀 아동을 위한 원가정 강화서비스 제공

- 단계별 자립 지원

1단계 중·고등자립관	11명
2단계 자립전준비관	6명
3단계 자립형 그룹홈	8명
4단계 자립관(LH전세 지원)	5명

- 대학 진학률

은평천사원 보호종료아동 (2018년 기준)	70.0%
전국 보호종료아동 (2017년 기준)	13.7%

STORY**“천사원에서 받은 사랑, 이제는 실천하려 합니다”**

은평천사원 거주아동 성장 및 퇴소 성공사례

2014년 퇴소한 김수빈 양은 천사원의 밴드부 활동, 해외 봉사활동, 뮤지컬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떨어져 있던 자신감을 회복하고 천사원의 자립프로그램 과정을 통해 대학(경찰행정법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학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대학 생활 중에는 엔젤스헤이븐 타조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랑과 도움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할 수 있었던 수빈이는 그 고마움을 감사하며, 자신을 후원해 준 후원자님들처럼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 후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천사원의 어린 동생을 결연 후원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수빈 양은 현재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Ah'늘함께지역아동센터**

Ah'늘함께지역아동복지센터는 지역 중심의 전문적, 통합적 복지서비스(아동의 방과 후 보호, 정서, 문화, 지역사회연계 등)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인원 53명(남 30명, 여 23명) 연령 초등학생 42명,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명



SOCIAL IMPACT

늘함께지역아동복지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단순한 돌봄이 아닌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아이의 잠재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외부활동과 예체능,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호자 간담회를 열어 가정과 일원화된 아동지도 방법을 공유합니다. 사교육 없이도 아이들의 다양한 능력을 개발 시키며 건강하고 밝게 성장하도록 합니다.

STRENGTH

- 아동의 창의성 계발이 가능한 예체능, 체험 위주 프로그램 개발/제공
- 아동 및 보호자 상담을 통한 기관과의 신뢰 관계 형성

프로그램	30개
운영 횟수	2,167회
참여 인원	35,972명

STORY

“우리아이가 밝아졌어요”

Ah'늘함께지역아동복지센터 이용 아동의 긍정적 변화

초등학교 2학년 김○○ 아동은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향으로 사람을 피해 다니고 자기 의사를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친구였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는 하지만 조금 어렵게 느끼거나 힘이 들면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늘함께지역아동센터와 7~8개월을 함께 한 지금은 스스로 해결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도움이 필요하면 먼저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특히 예체능 만들기 시간에 자신이 만든 작품을 보고 뿌듯해하며, 집으로 가져가 부모님께 자랑도 합니다. 김○○ 아동의 가정에서는 아동이 만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은 예체능 프로그램 덕에 아이가 훨씬 적극적으로 변하고 자신감이 생겼으며, 가정의 분위기가 밝아져 행복하다고 합니다.



은평청소년수련관

서울특별시립 은평청소년수련관은 지역 청소년들의 방과 후 활동을 위한 다양한 문화,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 연간 이용인원 749,063명
(청소년 활동사업, 청소년 창의사업, 청소년 상담사업, 교육문화사업, 생활체육사업 등)



SOCIAL IMPACT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립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이지만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적절한 교육과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어른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은평청소년수련관은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물질적 지원 외에도 정서적 지원을 통해 사회로의 진입을 보다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STRENGTH

-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자립지원 프로그램 수 **6**개

(상담지원프로그램, 검정고시 대비반,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기계발 및 문화지원, 기초생활 및 건강지원, 인턴십프로그램)

참여 인원 연간 **1,743**명

STORY**“학교 밖 청소년에서 사회 속 청소년으로”**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프로그램 운영 후기

자퇴 후 아르바이트를 했던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소통 방법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자퇴한 가장 큰 이유도 학교 내에서의 크고 작은 관계의 어려움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련관의 인턴십프로그램은 관계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과정부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다양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카페 운영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된 것입니다.

카페 운영 전반에 대해 결정권을 갖고 서로 회의하며 의견 차이를 좁혀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내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하는 훈련이 되어 어려운 상황에서 항상 쉽게 포기하던 아이들도 이제는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행동해 나갈 줄 알게 되었습니다.

**타조장학사업**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청년들이 많습니다. 엔젤스헤이븐 타조장학회는 학업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높은 장학생들을 지속해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모금 활동으로 기금을 확대하고자 노력합니다.



SOCIAL IMPACT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청년들이 많습니다. 엔젤스헤이븐 타조장학회는 학업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높은 장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모금활동으로 기금을 확대하고자 노력합니다.

STRENGTH

- 재능과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와 여건 제공
- 지역사회 및 해외 장애, 비장애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과 다양한 학술 관련 사업 지원

장학생 **101**명
(고등학생 59명, 대학생 23명, 중학생 19명)

장학금 **61,050,000**원

STORY**“타조장학생을 통해 받은 나눔, 잊지 않고 실천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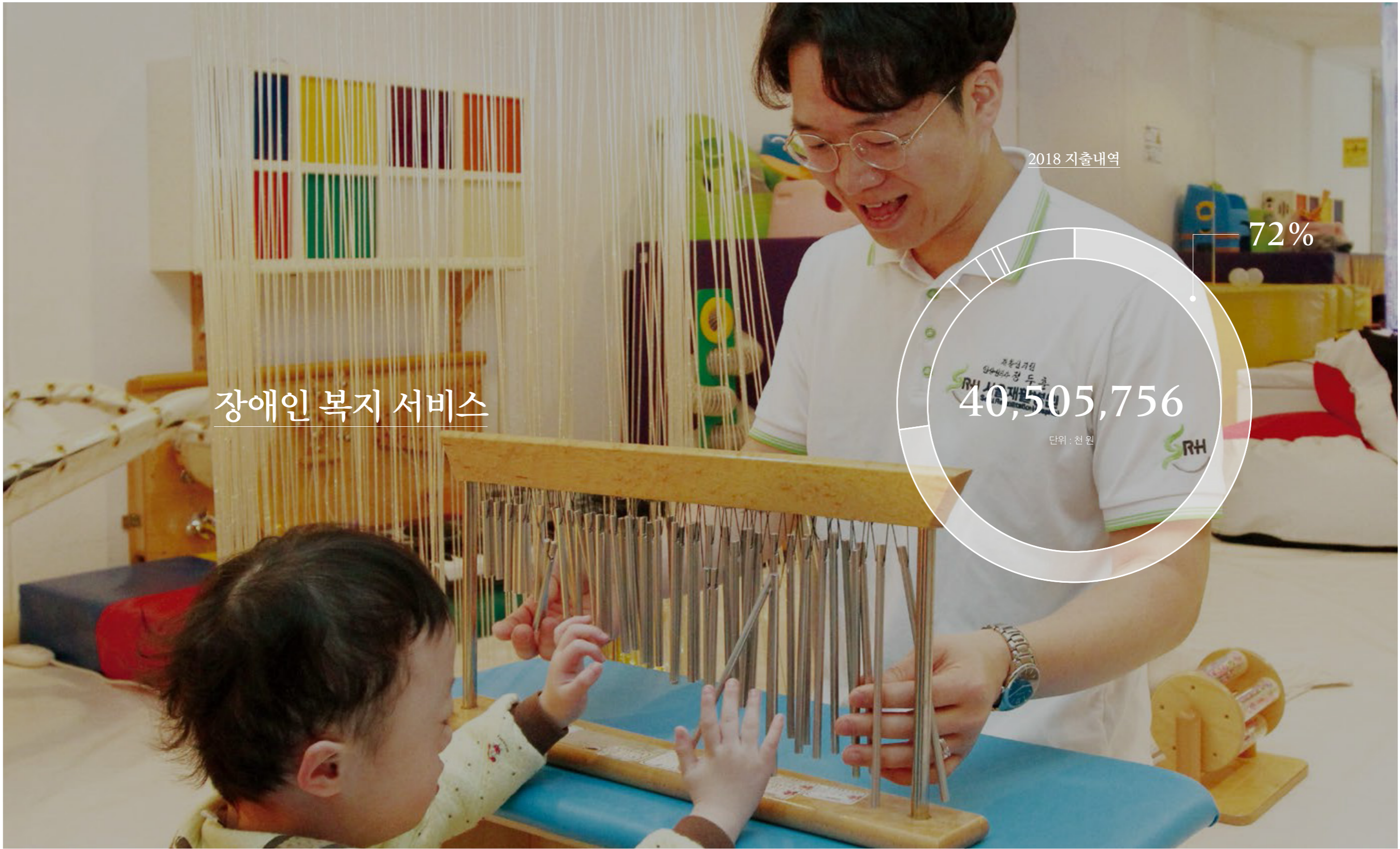
이화여대 임선진 학생 사례

대학생인 저는 타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고, 4학년이 되기 전 '저 자신'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제가 실현하고자 하는 직업적 가치를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부당함을 바로 잡고, 불평등을 해결하는 일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인권을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공인노무사(혹은 노동 전문 변호사)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의 진로 방향을 잡고, 학업에 정진하는데 타조장학금이 정말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저 또한, 받은 '나눔'의 가치를 잊지 않고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

2018 지출내역



은평기쁨의집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의식주와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개인의 성향을 고려해 맞춤형 치료, 교육, 직업연계 및 여가/문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주 인원 41명 교육지원 35명 직업 5명(누아하우스, 은평보호작업장, 이마트)



SOCIAL IMPACT

시설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자라온 장애인들은 시설 밖 사회가 두렵습니다. 은평기쁨의집은 거주인들의 성장 단계에 맞춘 시설 밖의 삶(여행, 외출, 자립생활주택 등)을 경험하게 하고, 사회 속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거주인들은 개인의 능력을 최대화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기르게 됩니다.

STRENGTH

- 개인의 욕구와 권리 존중
-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 지역사회 참여 및 통합이 반영된 지원

- 아동기(잠재 능력 발휘 기회 제공)

개별외출	224명	교육지원	31명
개별여행	17명	1인 1취미활동	34명

- 청소년기(자립 준비)

자립상담	10회	자립정보제공	연 1회
생활욕구 조사	연 1회	자기옹호	84회
직업교육	120회	인권교육	2회

- 성인기(자립 지원)

자립 지원(임대주택, 자립생활주택, 그룹홈 연계, 무연고 자립퇴소 지원, 홈커밍데이) 및 취업연계

STORY**“어른이 되는 방법을 배워요”**

은평기쁨의집 자립주택 생활 사례

시설에 사는 장애아იდ들은 여럿이 함께 생활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잠도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어렸을 때는 그것이 그저 당연하고 친구들이 많아 즐거울 때도 있지만 청소년이 되면서부터는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없는 것을 많이 불편해 하고 힘들어 합니다.

3년 전, 인근 빌라로 고등학생 5명이 자립하여 이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혼자 사용하는 방이 생겼고, 내 침대와 내 옷장, 내 것들이 생겼습니다. 같이 지냈던 습관으로 잘 때만 되면 한방에 모이기도 했지만, 점차 각자의 생활방식을 만들어가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설에서 지낼 때와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공간이 주는 힘이 적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떨어져 지내니 책임감이 생겼고, 각자의 생활방식을 존중하는 방법도 익히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빌라 1곳을 더 마련하여 총 3곳에서 6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바리스타, 사무보조 등 다양한 직업을 갖게 된 아이들은 이제 혼자 출·퇴근하며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어갑니다.

**은평재활원**

은평재활원은 모든 이용인의 개인적인 삶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은평재활원은 2014년 시설 안전진단에서 안전등급 E(사용금지) 진단을 받고 '강제이행조치 명령'으로 철거되었으며, 2017년 5월 30일에 신축 공사가 시작되어 2018년 6월 30일에 완공되었습니다.

거주 인원 50명 교육지원 10명(은평대영학교) 직업 15명(은평보호작업장, 누아하우스, 빛가람작업장, 기타 2명)



SOCIAL IMPACT

개인 가정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과는 다르게 공동생활 시설은 단체 생활이기에 이용인 개인의 공간과 영역을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평 재활원은 이용인의 삶의 질 향상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신축건물을 설계하였습니다. 2인 1실과 개별 화장실, Semi-Public 공간(카페, 도서관 등), Semi-Private 공간(중앙정원, 거실, 소규모 거실, 작은 주방)을 마련하여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프라이버시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STRENGTH

- 이용인의 자기 결정권 존중,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주거환경 제공
 -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소통하는 공간 제공

거주공간에 대한 이용인의 만족도

2014년	68%
2018년	96%

STORY

“새 집에서의 행복한 일상”

재활원 이용인 신종민 군의 자유로운 생활 사례

새로 지어진 은평재활원에 이사 오기 전에는 불편하고 힘든 점들이 많았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길이 계단이 있어 숙소까지 음식을 가져다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음식이 식어 따뜻한 밥을 먹지 못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이용하지 못해 이동할 때마다 늘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바쁜 선생님께 항상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너무 죄송했습니다.

이곳에 온 후 제일 좋은 점은 엘리베이터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는 직접 식당으로 이동해 형, 친구, 동생들과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식사를 합니다. 또 거실에 작고 예쁜 주방이 생겨서 라면도 끓여 먹고 계란후라이를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신축건물이 지어지는 동안 뽀뽀이 흩어져 있던 재활원 가족들과 편안하고 따뜻한 곳에서 한데 모여 살 수 있는 요즘은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행복하답니다.



은평대영학교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들이 지적장애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성으로 교육합니다.

학생 수 238명(유·초등부 76명, 중학부 67명, 고등부 71명, 전공과* 24명)
*전공과 :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교육과정



SOCIAL IMPACT

성인이 된 발달장애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개별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지만, 모든 학생의 필요를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은평대영학교는 학생들의 작은 행동과 언어표현을 존중하며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여 비장애인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STRENGTH

- 일반인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 독립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립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 완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직업능력과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 지역사회에 일원으로 참여, 봉사, 나눔을 함께할 수 있도록 교육

STORY**“칭찬을 시작하자 아이들이 변했습니다”**

은평대영학교 'PBS(positive behavior support),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 사례

김OO 군은 은평대영학교 고등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이 학생은 학교에서 하는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PBS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을 시작하기 전 김 군은 “복도에서 천천히 걸어야지”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 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 군은 9가지 규칙을 배우고 선생님들의 칭찬과 더불어 칭찬 쿠폰제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뛰어다녔던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복도에서 천천히 걸어요.’를 잘 지키고 있으며, 차례를 지키고 친구들과 복도에서 부딪치지 않으니 친구들과의 사이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PBS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은 학급에서만 하는 칭찬이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모든 교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학생들을 칭찬하고 바른 행동을 독려하는 특색사업입니다.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감소시킴과 더불어 학생들의 사회적·학업적 성취를 극대화합니다. 한 학생의 변화뿐 아니라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은 학생과 교사, 더불어 가정을 위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인간중심, 지역사회 중심, 참여와 변화실천이라는 미션 아래 지역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이 살기 편한 지역사회 환경조성과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해 일하는 장애인복지 전문 기관입니다.

주간보호서비스실 이용 인원 15명, 총 323건 재활치료 및 공공재활의료사업 10,599명 활동보조서비스
교육이수자 578명, 서비스 이용자 263명, 활동보조인 파견횟수 44,900건 인권활동 190건 문화활동 7,684명



SOCIAL IMPACT

발달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서부장애인종합 복지관은 성인 장애인들이 활기차고 보람된 생활, 독립된 삶을 살고 장애의 퇴행을 막기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TRENGTH

- ‘찾아가는 문화참여’사업을 통한 지역 성인 장애인과 연계
-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 프로그램 활성화로 참여 기회 확대
 - 참여자의 특성과 환경에 맞춘 자립 생활 프로그램 제공

평생학습		자립생활	
중장년장애인 평생학습 '꽃보라'			
프로그램 수	6개	프로그램 수	3개
연 인원	646명	연 인원	135명
교양취미 '함께 배움'		문화프로그램	
프로그램 수	16개	프로그램 수	59개
연 인원	5,003명	연 인원	1,299명

STORY

“노래 부르고 운동하며 활기찬 삶이 되었습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 이용자 이상주 씨(62세, 지적장애인) 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문화참여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이상주입니다. 복지관을 알기 전에는 밖에 나갈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말에는 교회에 나가고 평일에는 주로 집 안에서만 있었습니다. 가끔 병원에 가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었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서 내가 집 안에 있는 대신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합창도 하고 컴퓨터도 배우고, 한글 문예를 배워 창작도 합니다. 사람들과 같이 노래하고 운동도 하니 생활이 활동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집 안에서 티비만 보며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도 저와 같은 장애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지관 프로그램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재활병원

서울재활병원은 1998년 설립되어 소아,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환자의 생애주기별, 생활유형별 맞춤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뇌졸중, 척수손상, 뇌성마비, 발달장애, 근골격계질환, 통증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재활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통합적 재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재활전문병원입니다.

환자 이용 수 107,195명(연 입원환자 29,446명, 연 외래환자 50,329명, 연 낮병동환자 27,420명)



SOCIAL IMPACT

장애인을 위한 공공재활의료는 수요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이 또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재활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가 많은 현실입니다. 서울재활병원은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을 위해 다양한 공공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오랜 기간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환자와 환자 가족을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공공재활의료사업의 일환인 사회복귀 지원 서비스는 환자들의 신체적 기능 회복뿐 아니라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STRENGTH

- 공공재활의료사업 진행
 -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
 - 환자 가족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환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환자행복플러스 사업 진행

사회복귀사업	1,297명
환자 가족지원사업	656명
환자 행복플러스사업	4,417명
지역건강증진사업	4,501명
저소득환자 지원사업	1,085명

STORY

‘로하야 학교 가자’

중도장애 소아청소년 학교 복귀 프로그램

로하는 3년 전 만 8세의 나이에 원인 미상의 뇌경색으로 몸 한쪽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고, 걸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서울재활병원에서 1년간 집중 재활 치료를 받은 로하는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하던 중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중도장애를 겪게 되어 로하와 가족들은 심리적 위축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재활병원에서는 아이를 중심으로 가족과 학교가 함께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학급 친구들과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장애 전반에 대한 인식 교육이 아니라, 한 명의 장애 아이의 특성에 집중합니다. 같은 반 아이들이 이 아이가 겪어왔던 삶과 경험들을 이해하고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로하야 학교 가자’ 프로젝트는 올해로 벌써 3년째를 맞았습니다. 학교를 찾기에 앞서 로하와 작년 한 해 학교생활을 했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로하와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 등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 특성에 맞는 교육 콘텐츠가 완성됩니다.

드디어 학교를 찾은 날, 우선 ‘로하는 무슨 일이든 도와줘야 한다?’, ‘로하는 체육 시간에 함께 놀 수 있다?’ 등 퀴즈와 풀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로하와 잘 어울리는 법을 알려 주었습니다. 퀴즈가 끝나고 로하의 불편함을 공감하기 위해 아이들 모두 장애체험을 시작했습니다. 손에 붕대와 부목을 대고 글씨 쓰는 연습을 하며 장애의 불편함을 느껴봅니다. 이윽고 로하가 등장하고 아이들의 환호와 질문이 이어집니다.



“로하야! 다시 움직이게 되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

“그건 ‘감동’이었어!”

“로하야!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게 된 거야?”

“난 꼭 다시 좋아져서 축구를 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피나도록’ 재활치료를 했어.

우리 가족과 병원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어. 너희들도 목표를 가져봐.

나도 했으니까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발병 후 3년이 흐르는 동안 로하는 재활을 통해 신체 기능을 회복한 것은 물론 마음씀씀이도 넉넉해졌습니다. 로하 덕분에 아이들도 많은 것을 배웁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에게 그저 일반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 존중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커 나가야 한다는 것을 로하를 통해 깨달아가는 것이죠.

앞으로도 많은 로하들이 병원을 벗어나, 학교와 사회로 복귀해서 멋진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서울재활병원의 학교복귀 프로그램 ‘로하야 학교 가자’는 계속될 것입니다.



서부재활체육센터

서부재활체육센터는 지역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재활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들에게 문화적·사회적인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비장애인에게는 장애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을 개선합니다.

치료바우처 이용 11,501명 재활체육 이용 24,230명



SOCIAL IMPACT

장애인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재활 운동이 필요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서부재활체육센터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재활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게는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의 장을, 비장애인에게는 장애가 단지 한 사람의 '특성'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STRENGTH

- 장애인과 어르신 특화 재활 체육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장애인들의 사회성 향상 및 비장애인들의 장애 인식 개선 기회 제공

서울시 내 6개 재활시설* 중 가장 높은 이용률

어르신 및 장애인 이용률 **58.7%**

* 서울시 내 6개 재활시설 서부재활체육센터, 서울 공동리체육센터, 기쁜우리체육센터, 동천재활체육센터, 마포푸르메스포츠센터, SRC재활체육센터

STORY

“진통제와 같은 아쿠아로빅의 효과”

서부재활체육센터 회원 김영희 씨(65세) 사례

허리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아쿠아로빅을 등록했습니다. 의자에 앉거나 걸어 다닐 때도 눕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나서 점점 좋아지더니 2개월 후에는 아쿠아로빅의 효과를 체험했습니다. 허리통증과 피곤이 절정이었던 날이었는데 아쿠아로빅 수업을 끝내고 샤워하고 나오자마자 마치 척추 병원에서 준 진통제를 먹은 듯 컨디션이 아주 좋았습니다. 심적으로 다운되었던 기분도 전환되고 허리통증은 완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이용할 생각입니다. 근 2개월간 꾸준히 운동했더니 허리가 너무 좋아졌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은평보호작업장

은평보호작업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체계적인 직업재활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능인으로 양성시켜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장애인근로자 25명 매출액 78,642천 원



SOCIAL IMPACT

중증장애인들은 원활한 의사소통이 힘들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어렵고 대부분은 성인이 되어도 생산적인 일을 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은평보호작업장은 중증장애인 이기에 생산성은 낮지만 근로를 통한 장애인 당사자의 만족감과 성취감, 그리고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STRENGTH

- 맞춤형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활, 자립능력 배양
- 직업적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생산적인 기능인으로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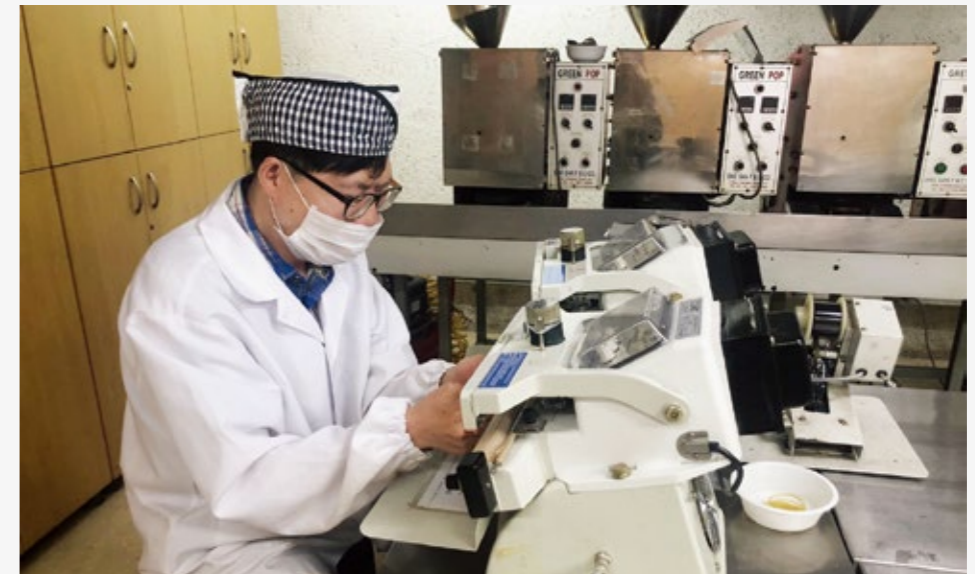
직업적응훈련	2,493명	문제해결훈련	1,964명
직무기능 향상훈련	3,653명	은행 및 택배훈련 등	201명
일상(가사)생활 훈련	9,954명	사회적응훈련	232명
직업훈련	5,642명	통근훈련	3,356명
취미 및 여가활동	3,182명		

STORY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은평보호작업장 우수 근로자 사례

현재 은평보호작업장의 근로 장애인 중 한 명인 이○○ 씨는 지적,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어 입소 초반 동료 장애인들과 의사소통이 어려웠습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시설을 이용하는 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일에 대한 의욕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평소 기계나 공구를 다루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이 씨의 장점을 파악하여 자체 생산품인 곡물 스낵과 호두과자 생산 기계를 다루는 법에 대해 반복 훈련을 했고, 그 결과 곡물 스낵과 호두과자를 생산하는데 주력하는 근로 장애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업능력은 있지만, 근로 의욕이 부족해 훈련생으로 머물렀던 이 씨는 2019년 현재, 전체 이용인 24명 중 호두과자, 곡물 스낵, 견과류 생산 시 사용되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근로 장애인이며, 우리 시설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야하우스

누야하우스는 우수한 친환경 제품 생산을 모토로 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돕는 사회적기업입니다.



SOCIAL IMPACT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장애인도 안정된 직장을 갖고 사회로 진출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사회적기업 누야하우스는 개별 근로자의 장점과 강점을 찾아 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매출을 높여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급여와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STRENGTH

- 장애인 근로자의 개별 역량에 따른 직무 훈련 및 적합한 직무 배치
- 이로 인한 근로자의 자긍심 상승과 매출 향상

2018년 현황

매출	882,716,438 원
임금	461,228 원
장애인근로자	52 명

STORY

“조금 느리지만, 일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곳”

근로자들의 자부심, 누야하우스

비누 팀에서 계량작업을 맡은 권주영 씨에게 어떻게 계량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는지 묻자 “처음에는 팀장님이 옆에서 지도하면서 알려주었지만, 이제는 저 혼자서 할 수 있어요.”라며 당당하게 말합니다. 주영 씨는 숫자를 잘 인지하고 손이 빨라 계량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현재처럼 업무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선생님들이 믿고 맡겨주셔서 기분이 좋다고 말합니다.

직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은 생일입니다. 누야하우스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서로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동료들의 생일을 스스로 기억해두고 축하해주는 일이 거의 없는 장애인들에게 많은 사람이 자신을 축하해주는 생일날은 가장 특별한 날입니다.

누야하우스 근로장애인들은 친구와 가족들에게 “제가 오늘 만든 비누예요!”, “제가 직접 포장했어요.”라고 자랑하며 누야하우스에서 일하는 것을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건강한 마인드를 가진 직업인이 된 장애인들은 높은 집중력과 생산성으로 매출에 기여하며, 경제적인 자립과 직업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느리지만 일을 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직업재활 시설로서 누야하우스의 역할입니다.



지노도예학교

지노도예학교는 예술에 장애가 없다고 믿습니다.

지노도예학교는 엔젤스헤이븐이 지원하는 장애인 사회적기업으로 재능 있는 장애인 예술가들을 양성하고, 일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재 장애인 도예가들이 근무 중이며 도자 상품을 만드는 역할을 넘어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예수업의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하나파워온임팩트에 선정되어 발달장애인 직무교육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장애인 도예가와 작가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바보의 나눔’ 후원으로 장애인 도예가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가능성 있는 장애인들을 발굴했습니다. 또한 교육소의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제멘토링’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해서 지역의 교육복지에도 기여했습니다.

기업과 지자체들이 지노도예학교의 미션과 성과에 주목하고 협업과 지원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따뜻한 자원들이 장애인 예술가들의 활동과 일자리로 잘 연결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사업 참여학교(단체) 126개 참여 인원 7천명 매출 1억 2천만 원 제품 판매 3,533만 원 공모·후원금 8천만 원



2018 지출내역

2019년 구립갈현노인복지관-어버이날 기념 **孝** 대잔치
사랑해孝 감사해孝 건강해孝
■일시 : 2019.5.8.(수) 10:30~14:30 ■장소 : 2층 강당 구립갈현노인복지관

지역 복지

1,683,819

단위 : 천 원

53%



모자가족 자활 센터 힙돌회

모자가족 자활 센터 힙돌회는 가정경제의 어려움, 가정폭력, 이혼, 사별 등으로 노숙 직전에 처했거나 실제 노숙을 하는 모자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생활 시설로 모자가족 자립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소자 19명(어머니 7명, 자녀 12명)



SOCIAL IMPACT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와 아이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거주 공간과 직업이 필요합니다. 모자힙돌회는 2년 동안 지속적인 상담과 사례 관리, 다양한 자립 준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아이와 함께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STRENGTH

- 모자가정 자립 준비 지원
 - 초기 정착 지원
 - 지속적인 상담 및 사례 관리
 - 일자리 연계, 저축 관리, 한부모양육코칭, 자녀 방과 후 공부방 운영, 지역사회자원 연계 등 자립 준비 지원
- 연도별 자립 퇴소율
(주택 전·월세, 매입임대주택, 전세매입임대주택 등으로 퇴소)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	95	100	100	75	93	100	76	89	80	100	77	100	90

STORY**“이제는 희망의 김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힌돌회 자립가정 성공사례

이영숙 씨는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와 두 명이 딸과 함께 갈 곳이 없어 힌돌회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힌돌회에서 생활하는 기간 동안 취업 성공패키지를 통해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분식집 창업의 꿈을 갖고 분식집 주방에서 일을 배우며 3년간 창업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8년 4월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 지원을 받아 김밥집을 개업하여 현재 운영 중입니다.

힌돌회에서 생활하는 2년 동안 매월 조금씩 저축하여 자립준비금을 모았고 퇴소 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였습니다. 아이들 또한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학교생활을 바르게 하며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영숙 씨가 운영하는 '김만우' 분식집은 김밥, 만두, 우동이 주된 메뉴이며 예일초등학교 정문에 있습니다. 개업 1년이 되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단골도 생기고 단체 주문도 생겨 꾸준히 매출이 오르고 있는 상황으로, 아이들과 함께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밥집을 운영하며 앞으로는 본인과 같은 어려운 모자가정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내일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합니다. 모자가정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꿈을 이루어 나아가는 데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희망을 품고 오늘도 김만우에서 맛있는 김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갈현노인복지관**

갈현노인복지관은 은평구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시설과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장기 요양 등급자 및 등급 외자를 주·야간 보호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입니다.

회원 등록 수 3,867명 평생교육 취미여가지원사업 35,008명 고용지원 15,566명 건강생활지원사업 46,758명
정서생활지원사업 896명 사회참여지원사업 754명 지역사회사업 2,954명



SOCIAL IMPACT

갈현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 어르신들의 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고민하고, 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STRENGTH

- 지역 어르신들의 필요에 맞춘 복지서비스 제공
- 자발적 사회참여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프로그램**44**개

(건강증진 지원, 평생교육, 취미여가 지원,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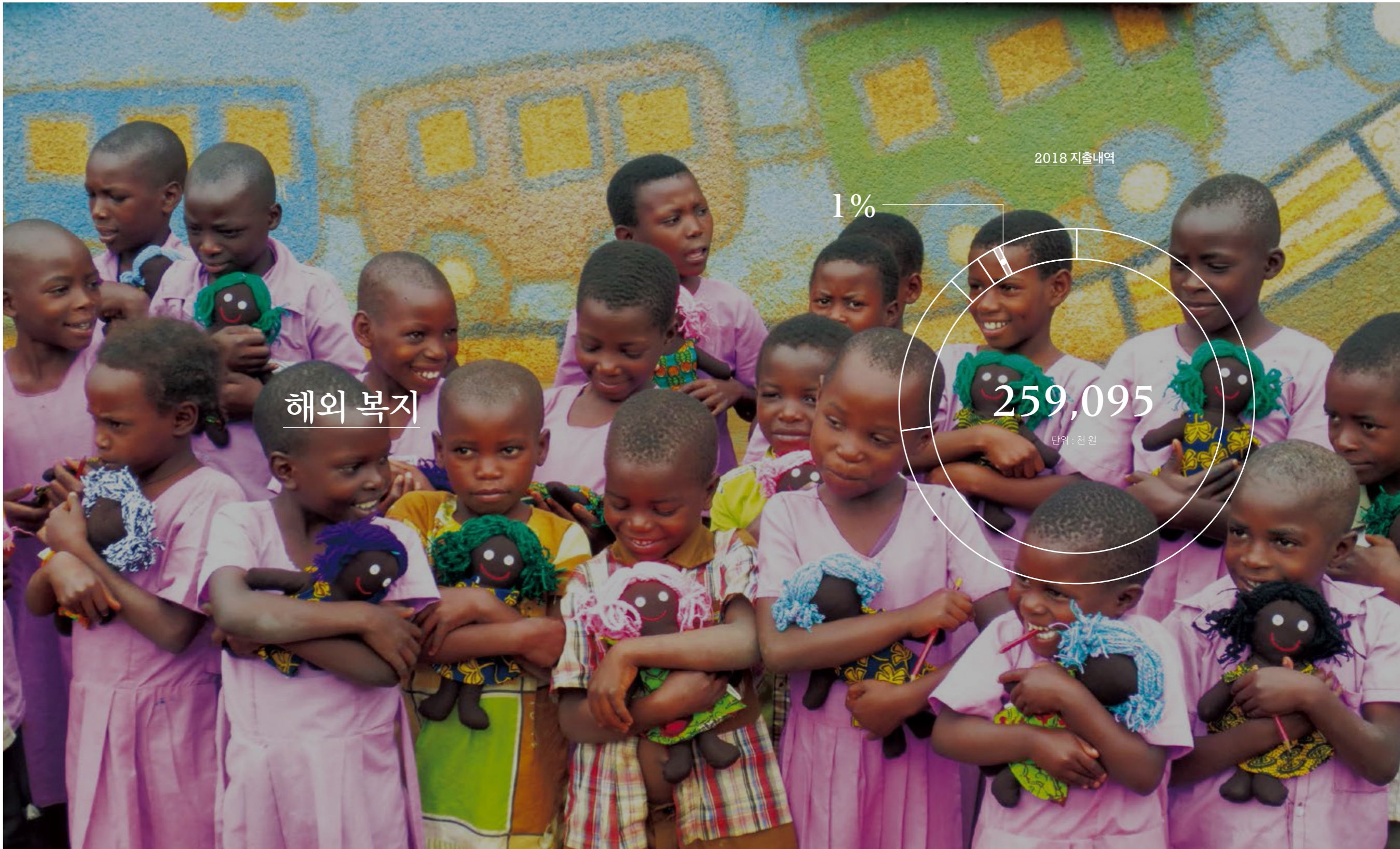
참여 인원연간 **1,288**회**STORY****“식구가 뭐냐고요? 같이 요리하고 밥 먹는 사람들이죠”**

남성 독거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 사례

평소 내성적인 성격으로 혼자 점심을 먹는 요리 교실 참여자 정○○ 어르신은 어느 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이 걱정되었던 사회복지사가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새어 나오는 어르신 댁의 현관문을 열기로 마음먹었던 그때, 일산의 한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이 밤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였고 수급자인 어르신의 소식을 행정동과 복지관으로 연락을 취한 것입니다.

내성적인 성향으로 친구도 없이 지내던 정○○ 어르신에게 요리 교실 조원들이 걱정을 담아 연락했고, 불편한 거동임에도 불구하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어르신은 요리 교실 조원들에게 보일러와 텔레비전만 꺼 달라고만 부탁했지만, 조원들은 집안 정돈뿐만 아니라 퇴원 후에도 밑반찬을 해주며 건강회복을 도와주었습니다. 덕분에 복지관으로 돌아온 어르신은 같은 조로 활동하였던 동년배 어르신과 함께 식사하고 매일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2018 지출내역

1%

259,0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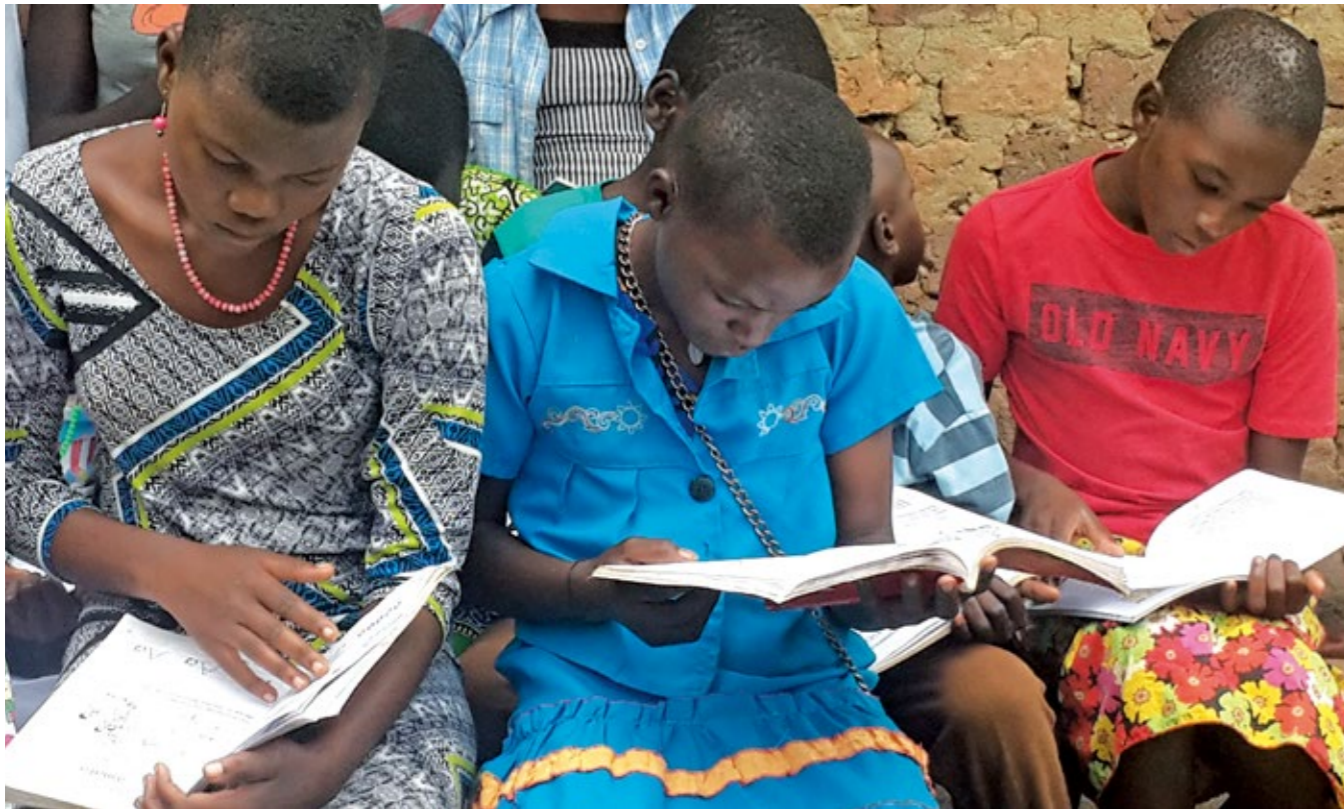
단위 : 천 원

해외 복지

우간다

교과서 없이 학교에 다니는 우간다 빈곤 아동의 교육을 위해 우간다 지역 6개 초등학교에 도서관을 설치하여 도서 지원, 사서 양성, 독서문화행사, 이동도서관(독서클럽)을 지원합니다.

장학지원 81명 여성자립지원 738명 지역역량강화 607명 미션이조함운영 수익 735만 원 이상



SOCIAL IMPACT

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우간다 대부분의 초등학교에는 정규 수업에 필요한 교과서가 부족해 공부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엔젤스헤이븐은 도서관을 건립하고 도서를 지원해 우간다 빈곤 가정 아동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독서클럽(차량 이동도서관)을 통해 아이들이 마음껏 책을 읽음으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RENGTH

- 사서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도서관 자립 운영능력 개발
- 차량 이동도서관 운영

사서 양성 교육 **30**명

도서관 이용자 수 연 **248,971**명

독서클럽 참가자 수 연 **6,810**명

STORY

미래의 수의사, 우간다장학생 '로버트'가 보내 온 감사편지를 소개합니다

우간다에 사는 '이싱고로마 로버트'는 엔젤스헤이븐 장학결연 학생 중 대학교에 진학한 첫 번째 학생입니다. 2017년 농업전문대학에 입학 후 장학금을 받아 무사히 대학교를 졸업한 로버트에게서 엔젤스헤이븐 과 후원자님께 전하는 감사 편지가 도착하였습니다.

To. 엔젤스헤이븐 그리고 감사한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는지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엔젤스헤이븐의 아낌 없는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형편 탓에 수의사가 되고 싶은 꿈을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었는데, 장학금으로 교육을 받으며 수의사라는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엔젤스헤이븐이 저를 도와준 것처럼 저 또한 저와 비슷한 처지의 다른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의 미래 계획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의 미래 계획>

1. 저처럼 수의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돼지, 가금류와 같은 동물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수립할 것입니다. 실용적인 관리 기술을 가르치고 제공하고자 합니다.
2. 인근 농민들과 가축업을 하는 지역 사람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알려주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교육할 것입니다.
3. 개인적인 계획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어려운 형편의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상으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두 건강하세요! 이싱고로마 로버트 올림.



베트남

베트남의 지적, 학습장애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며 엔젤스헤이븐이 축적한 특수교육 모델과 지식, 노하우를 베트남 교육부 및 특수교육, 지역사회에 전수합니다.

수혜자 교사 56명(빙밍특수학교 16명, 타잉치초등학교 40명)
간접수혜자 2,793명(빙밍특수학교, 타잉치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등)



SOCIAL IMPACT

베트남의 0~16세 학령기 장애아동 중 10%만 특수학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수도 하노이에도 장애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특수 및 통합학교는 10개뿐이며,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과정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엔젤스헤이븐은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온 수십 년간의 경험과 자원을 나누고자 전문가를 파견하고 현지 특수교육 실무자들을 초청하여 한국의 특수교육 모델을 전수합니다. 이를 통해 베트남 장애인들에게 더 나은 환경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STRENGTH

- 특수학생 담당 교사와 부모, 친구를 위한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매뉴얼 제작
- 베트남 교육부, 특수학교 관계자를 초청하여 한국의 특수교육 모델 전파

매뉴얼 제작 및 보급 현황

매뉴얼	5종
보급	연간 428명
한국초청연수자	9명

STORY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선물받았습니다”

베트남지부 김진영 단원 봉사후기

안녕하세요, 베트남 지부로 파견 중인 김진영 단원입니다.

지부에 파견 와서 있었던 많은 일 중 기억에 남는 행사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지부와 협력 기관, 두 시범학교가 힘을 합하여 학생들의 장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인형극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학교마다 4일의 시간을 들여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들이 직접 인형을 만들고 인형극을 구성하여 크리스마스에 타임치초등학교의 비장애 학생들 모두에게 보여주는 행사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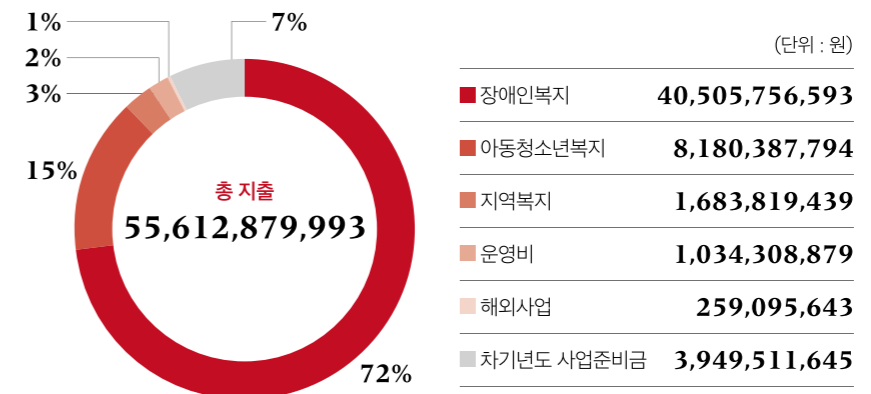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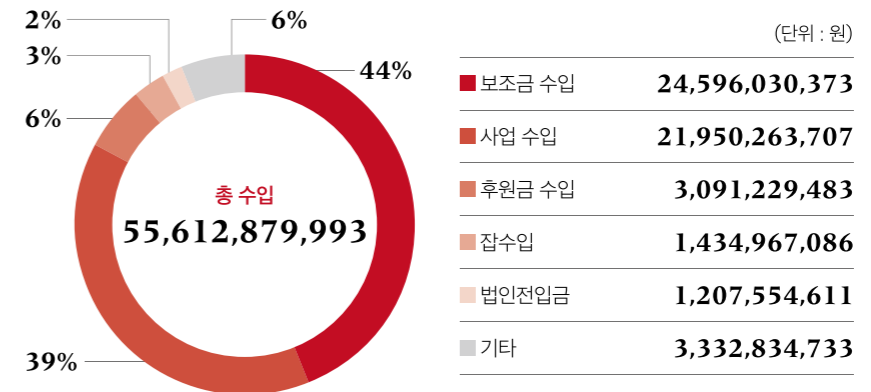
행사 중 한 세션은 빙빙특수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아름다운 교실’이라는 제목의 창작 인형극이었습니다. 한 교실에 장애 학생들과 비장애 학생들이 서로 도와주며 진정한 통합을 이룬다는 메시지를 담은 공연입니다. 사전 조사를 진행하였을 때 비장애인 학생들은 장애인은 우리와 다르다고 답했었지만 인형극을 준비하며 장애 학생들과 함께 활동하며 편견 없이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베트남의 장애 인식 변화의 시작이 된 이날의 공연은 함께 준비한 저에게 무엇보다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었습니다.

인형극 공연은 학생들을 위한 행사였지만 앞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많은 편견들과 마주할 때, 이날을 기억하며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재정보고

2018년에도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엔젤스헤이븐 기관안내

기관명	전화	팩스
은평천사원	02-355-1701	02-357-3923
은평재활원	02-385-2046	02-356-5650
은평기쁨의집	02-388-0050	02-388-6904
출소자심터 힌돌회	02-372-5905	02-372-5915
모자가족자활심터 힌돌회	02-372-5905	02-372-5915
은평대영학교	02-353-2040	02-389-0623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02-351-3982	02-351-3987
서울재활병원	02-6020-3000	02-6020-3099
서부재활체육센터	02-388-6622	02-389-1155
누아하우스	02-351-3599	02-389-3599
은평보호작업장	02-388-2363	02-388-3428
Ah'늘함께지역아동복지센터	070-7113-5617~9	02-357-3923
참빛교회	02-389-8446	-
서울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	02-383-9966	02-383-0508
구립갈현노인복지관	02-357-2640	02-357-2641
갈현데이케어센터	02-357-2640	02-357-2641
녹번어린이집	02-352-7818	02-382-7818
행당푸르지오어린이집	02-2295-1220	02-2295-1221

엔젤스헤이븐 2018 연간보고서

발행일 2019년 6월 21일
발행인 조준호
편집 및 기획 엔젤스헤이븐 후원홍보팀
디자인 더디앤씨 www.thednc.co.kr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11길 30
전화 02-357-1701
팩스 02-387-1620

www.angelshaven.or.kr